

# 일몰 후 어린이를 보호하자

사교육 활동의 증가 및 생활습관의 변화로 어린이들의 일몰 후 거리통행과 활동이 늘어나면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가시거리가 짧고 주의가 산만해지는 야간시간대에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.

## <일몰 후 안전 가이드라인>

- 일몰 후 외출시에는 되도록 부모나 보호자가 함께 하도록 한다.
- 부득이하게 어린이 혼자 외출시에는 어둠속에서도 눈에 잘 띄는 원색의 겉옷이나 형광 반사표시가 있는 신발, 가방 등을 착용시킨다.
- 일몰 후 어린이 혼자 보행시에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 걸어 다니거나 무단횡단, 핸드폰 통화, 휴대용 게임기 사용 등을 하지 않는다.
- 내리막길에서 뛰거나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행위, 우산이나 모자로 시야를 가리고 다니는 등의 안전하지 못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.
- 일몰 후 야외 활동시에는 가능한 자전거, 인라인 스케이트 등 바퀴달린 놀이기구를 타지 않도록 하며, 부득이하게 탈 경우에는 형광 반사표시가 있는 제품을 타도록 하며 부착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로 형광 팔찌나 형광표시를 부착하고 탄다.

## <아동용품 구입시 주의사항>

- 어린이의 의복 구입시에는 되도록 명도가 높은 원색의 옷을 구입하고,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형광 반사표시가 있는 제품으로 선택한다.
- 어린이의 신발이나 가방 구입시에도 원색이나 형광 반사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한다.
- 자전거 구입시에는 리어 리플렉터(후면 반사경), 페달 리플렉터, 사이드 리플렉터, 전조등, 프런트 반사경 등의 부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며, 없을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한다.
- 인라인 스케이트, 키보드 등의 바퀴달린 놀이기구 구입시에도 형광 반사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한다.

